

G20 에 반대한다

해고와 비정규직을 늘리는 '노동 시장 개혁' 강요

- 사회복지 삭감, 공무원 연금과 임금 삭감,
-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,
-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'노동유연화' 강요

환경 파괴 정당화

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



- 경기부양예산의 80.5퍼센트(4대강 예산)를 녹색부문에 배정했다며 한국을 녹색국가로 칭송<G20런던 정상회의>

전쟁지지 동맹

- G20은 '대테러'동맹에 적극 나서 전 세계 갈등을 조장해 왔다.

경제 위기의 부담을 서로 떠넘기려는 국가들 간의 각축장

- (미중 환율 전쟁 때문에) “서울 G20,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회의가 될” 것이다.
국회입법예산처 보고서

경기부양책은 부자들만을 부양, 재정 긴축은 복지와 공공서비스 후퇴로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

- “충격적일 정도의 긴축 규모를 보면 위기의
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.
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많이 내야하고, 연금은
더욱 줄어들 것이고, 공공부문 노동자들의
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.”

(2010년 캐나다 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에
대한 저명한 반자본주의 활동가 나오미
클라인의 논평)

갈수록 후퇴하는 금융규제안

- 금융규제효과는 갈수록 퇴색하고, 오히려
투기자본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으로부터
빠져나갈 구멍만 마련해 주고 있다.



G20을 계기로
국격을 높이자는 이명박이
최근 추진하는 정책들...

‘국가고용 전략 2020’

– 비정규직은 늘리고 노동조건은 공격

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– MB의 말, 말, 말

- “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려라”
- “우리처럼 물값이 싸고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다”

등록금 인상

–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 원 연내 지급 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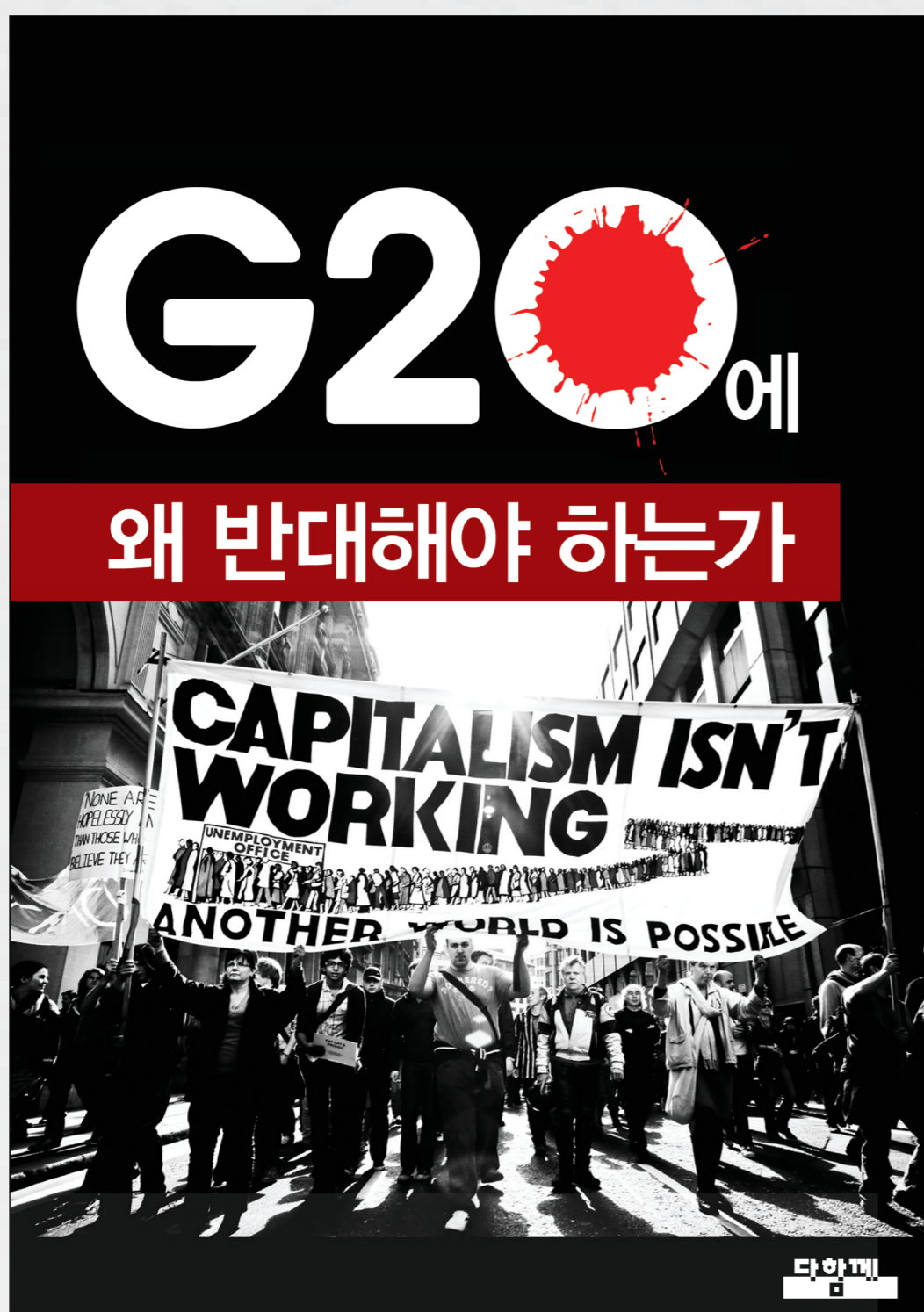
‘경호 특별법’ 등을 앞세운 민주적 권리 억압

-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, 야간집회 금지 시도
- 물대포, 테이저 건, 다목적 발사기, 최루액



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

지금 이 곳에서
신문과 소책자를 구입하십시오



G20에
왜 반대해야 하는가

다함께 지음
2,000원

G20에 항의하는 행동에 함께 합시다

2010년 11월 7일(일)

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! **전국노동자대회**

노동기본권 사수! 노동법 재개정! 비정규직문제 해결! G20 규탄!

장소: 서울광장 주최주관: 민주노총

2010년 11월 11일 오후3시

사람이 우선이다!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규탄

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

장소 : 미정 주최 : G20대응민중행동 (오후2시부터는 사전 집회가 개최됩니다)